김영사

"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88만원 세대' 우석훈이 쓴 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국가 전복 시나리오!

모피아

돈과 마음의 전쟁

출간 전부터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문제작!
2012년을 화려하게 장식할 최고의 기대작!

★재미있다. 화난다. 그리고… 다행이다 영화감독 이준익
★우석훈의 소설은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학이다. 경제학자 유종일
★드라마작가로서 이 책이 무척 반갑고, 귀하게 느껴진다. 〈대장금〉 드라마작가 김영현

화제의 신간

우석훈 장편소설

340쪽 | 12,000원

2014년,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돈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경제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정부를 장악한 모피아, 그들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한 남자의 외로운 사투. 국운을 둘러싼 전면전에서, 다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돈의 전쟁'으로 확전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주인공과 모피아 간의 숨막히는 두뇌싸움! 경제학자로서의 냉철한 분석력과 정확한 예측이 문학적 상상력을 더해 마치 실제 사건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한효주 치료해준 '빈칭꼬'

metro
메트로 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제2628호 www.metroseoul.co.kr

유럽팬이 뽑은 스타 2NE1

인증샷 찍으면 식사 공짜

아이패드·영화티켓 선물

홍대클럽은 입장료 할인

'밥 먹여주는 투표' 꼭 찍어야죠!

"투표가 밥 먹여줍니까?" "네, 밥 먹여줍니다."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뿌리 깊은 정치혐오 풍조를 스스로 바꿔나가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한 유권자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투표 마켓'이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번지는가 하면 직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일인 19일 휴점·휴업을 선언하는 업체도 꾸준히 늘고 있다.

◆ 투표확인증만 있으면 OK

투표 마켓은 말 그대로 '투표가 밥 먹여준다'는 구호를 몸소 실천하는 가게들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투표확인증이나 투표 인증샷(투표소 등 개인의 투표 행위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진) 등을 제시하는 유권자는 투표 마켓에서 비용 할인 및 덤 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광주에서 '투표 마켓 1호'로 문을 연 메가박스 충장비스타점과 하남점은 투표한 유권자에게 19~20일 이틀간 영화 7편을 반값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 서구에 있는 분식점 '현봉'은 투표확인증 소지자에게 대선 투표일인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세트메뉴 주문 시 떡볶이·튀김·어묵 중 한 메뉴 1인분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할인과 디저트 무료 제공 등을 내건 카페와 식당 등 10곳이 투표 마켓으로 변신한다.

4·19혁명과 부마항쟁, 6월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부산민주공원은 투표를 약속하고 실천한 유권자를 추첨해 아이패드 미니와 영화예매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투표 참여 열기를 북돋웠다.

서울의 인디밴드 기획사인 컴퍼니 러브락은 선거 당일 서울 홍대앞 클럽에서 '투표해 락(ROCK)' 콘서트를 열고 투표한 유권자에 한해 입장권을 1만원 할인해줄 예정이다.

컴퍼니 러브락 기명신 매니저는 "2010년 지방선거와 올해 총선 때도 같은 취지의 공연을 하면서 개표 상황을 발표했는데 호응이 좋았다"며 "'지지 정당을 떠나 선거가 축제'라는 말을 실감했다. 올해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권 보장운동도 활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유통업체나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투표시간 보장 운동도 활발하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으로 이뤄진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이날 직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휴점 및 출근시간 조정을 결정한 서울지역 34개 카페와 슈퍼마켓 등의 리스트를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조만간 공사를 시행 중인 각급 지방자치단체에도 현장 노동자에게 투표 기회를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황영민 참여연대 간사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press108@metroseoul.co.kr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10일 2차 TV토론에 참석해 설전을 벌였다. 1차 토론에 이어 두 후보는 이번에도 '스무고개 넘어가는 것 같은 질문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박) "대통령 후보가 세금도 내지 않았다"(이) 등의 말로 서로를 몰아붙였다. 사진은 토론시작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두 후보의 모습.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괴물에 390억 안겨준 30초 배짱

류현진 협상 마감직전 극적 사인

다저스서도 99번 LA 다저스와 입단 계약을 체결한 류현진이 자신의 트위터에 등번호 99번이 찍힌 다저스 유니폼 사진을 공개했다.

'괴물 투수' 류현진(25)이 협상 마감 30초를 남기고 극적으로 LA 다저스와 입단 계약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28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0일 오전 "다저스가 한국인 왼손 투수 류현진과 계약했다. 계약 기간은 6년으로 계약금 500만 달러를 포함해 총액 3600만 달러(약 390억원)를 받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계약 기간 5년을 채우면 이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요구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됐고 5년간 750이닝 이상을 던지면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FA로 풀릴 수 있다. 특히 연봉과 별도로 매년 투구 이닝에 따른 보너스로 100만 달러를 더 받는다. 보너스를 합치면 최대 액수는 4200만 달러(약 453억원)로 늘어난다.

이미 2573만7737달러33센트(약 280억원)의 포스팅 비용을 지출한 다저스는 류현진 영입을 위해 6200만~6800만 달러(약 670억~734억원)를 쏟아붓게 됐다.

류현진의 연봉은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 선수 중에서는 일본인 투수 다르빗슈 유(텍사스·6년 6000만 달러), 마쓰자카 다이스케(보스턴 레드삭스·6년 52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류현진의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스캇 보라스는 막판까지 다저스를 압박하며 몸값 줄다리기를 펼치다 기 협상 마감 시간인 10일 오전 7시(현지시간 9일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CBS 스포츠는 "류현진의 계약은 (30초 전인) 4시59분30초에 마무리됐다"며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보라스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와 마쓰자카의 계약 때도 협상 1~2분여를 남기고 계약서에 사인해 배짱이 두둑한 에이전트로 유명하다.

한편 류현진은 연방세(38%)와 주세(8%) 등 약 46%를 제외한 금액을 연봉으로 받는다. 보라스는 에이전트 수수료로 연봉의 5% 내외를 일시불로 챙긴다.

/김민준기자 mjkim@

수능 B형 선택땐 가산점

2014대입 주요대학들 어려운 B형 2과목 요구

현재 고교 2학년이 내년에 치를 201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이 늘고 어려운 수능 B형에 가산점이 붙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9개 대학의 '2014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해 10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 모집인원 37만9514명 중 수시모집 인원은 66.2%인 25만1220명으로 총 모집 인원 대비 수시모집 비율이 올해 64.4%보다 1.8% 포인트 늘어났다.

언어·수리·외국어 과목의 경우 난이도가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나뉘는 가운데 상당수 대학이 모든 과목에서 A형이나 B형 둘 다 받아들이는 교차지원을 허용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차지원을 허용하더라도 B형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대부분"이라며 "다만 상위권 대학은 외국어는 계열 구분 없이 B형을 요구하고, 인문사회계열은 언어 B형, 자연과학계열은 수리 B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3과목 중 2과목까지만 B형을 요구할 수 있고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요구할 수 없다.

대학들은 B형 선택자들에게 언어 5~15%, 수리 10~20%, 외국어 5~30%의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KCUE 대입정보' 홈페이지(www.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리기자 unique@

北 "로켓 발사 29일까지 연장"

"1단 로켓 기술적 결함"… 발사일 23~29일 가능성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발사 예정 기간을 기존 10~22일에서 29일까지 연장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1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과학기술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를 위한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돼 위성발사 예정일을 29일까지 연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내 로켓 전문가는 이에 대해 "1단 로켓의 엔진제어 문제로 보인다"면서 "소프트웨어나 엔진조정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기술위원회는 앞서 지난 1일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을 운반로켓 은하 3호에 실어 10~22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9일 "일련의 사정이 제기돼 발사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북한은 당시 '일련의 사정'에 대해 함구해 해석이 분분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발표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전에 받쳐 축포를 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22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올해 안으로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실제 발사일은 23~25일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유리기자

미용실 고무줄요금 끝!

내년부터 지역·영업점마다 다른 이·미용료의 최종 요금을 미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료에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손님이 내야 하는 최종 요금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안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미용실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서비스별로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영업장 신고 면적이 66㎡(20평)를 넘는 영업점은 출입문이나 창문, 벽면 등을 이용해 업소 외부에도 같은 요금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이같은 규모의 이용업소의 경우 '면도 0000원', '이발 0000원', '염색 0000원' 등 3개 이상을 고지해야 하며 미용 업소는 '커트 0000원', '드라이 0000원', '염색 0000원' 등 5개 이상의 게시물을 안쪽에 둬야 한다.

현재 66㎡ 이상 이·미용 업소는 전국에 1만6000여 곳으로, 전체 이·미용 업소 중 13%를 차지하고 있다.

옥외 가격 게시 의무를 어길 경우 최초 적발 시 개선 명령, 이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정도와 횟수에 따라 5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규칙은 피부미용실이 갖춰야 하는 필수 시설로 침대,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명시했다.

시설이 미비된 기존 업소의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배동호기자 clever@metroseoul.co.kr

개인용 난방용품 인기 | 대형건물·공공기관 등의 실내 난방온도 제한 영향으로 직장인들의 개인용 난방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직원들이 개인 난방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열고 히터 펑펑 가게 과태료 최고 300만원

내년부터 시내에서 문을 열고 난방한 업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전력 위기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에너지 절약 특별 대작전'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난방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는 사업장,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 업소, 41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실내온도 20도 초과 건물을 집중 단속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으로 누적된다.

시 관계자는 "12월부터 매주 수요일 7시 이후에는 청사 전등과 옥외 야간 조명을 모두 끄는 '사랑의 불 끄기의 날'을 운영할 것"이라며 "기업과 대학, 가정이 동참하는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희기자

"평생 누고님은 이웃에게 정도 많이 주고 시랑도 주고 많은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호강 한 번 못하고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고인이 됐습니다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작은 씨앗 하나를 구세군의 거룩하고 숭고한 숲 속에 띄워 보냅니다" 2012년 12월 신월동 주민 아무개

자선냄비 또 1억 수표

날씨는 추워져도 이웃을 돕는 기부천사의 마음은 얼어붙지 않았다.

한국 구세군은 "지난 9일 서울 명동 입구에 설치된 자선냄비 거리 모금함을 10일 오전 은행에서 계수하는 과정에서 익명의 후원자가 1억570만원권 수표를 후원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세군에 따르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중년의 후원자는 지난 9일 오후 6시25분께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꼭 써달라"며 자선냄비에 편지가 담긴 봉투를 넣은 뒤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신월동 주민 아무개라고만 신원을 밝힌 편지에는 "평생 부모님은 이웃에게 정도 많이 주고 사랑도 주고 많은 것을 나눠줬다. 그러나 호강 한 번 못하고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고인이 됐다.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작은 씨앗 하나를 구세군의 거룩하고 숭고한 숲 속에 띄워 보낸다"고 적혀 있었다.

한국 구세군 박만희 사령관은 "27년 만에 제일 추운 날에 가장 따뜻한 정성과 사연을 전해준 후원자의 뜻대로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거리 자선냄비에 한 60대 남성이 1억1000만원짜리 수표를 넣은 데 이어 90대 노부부가 2억원을 후원한 바 있다.

구세군은 50억원을 목표로 전국 76개 지역 300여 곳에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잔액 부족합니다" 낭패 안본다

교통카드 2500원 남으면 '충전 필요' 미리 알려줘

시내버스 탑승 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댔을 때 경보음과 함께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가 나와 당황했던 일이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15일부터 선불 교통카드의 잔액이 2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단말기를 통해 충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범 운영 대상은 우선 서울 시내버스 465대로 15일부터 한 달간 서비스에 나선다. 이 서비스는 선불 교통카드 사용자의 카드 잔액이 2500원 이하로 남았을 때 하차 시 "충전이 필요합니다"라고 사전에 알려준다.

/박총모기자 [illegible]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27> 글·그림_박상철

손정의,
포브스지 '올해의 기업인' 선정

2000년 12월 11일 한국계 일본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이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기업인'에 뽑혔다. 포브스는 그를 선정한 이유로 "일본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손사장은 회사를 크게 키웠고 야후의 대주주가 되는 등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고 밝혔다. 2011년 같은 잡지에서 조사한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2010년 말 그는 총 자산 81억 달러로 일본 최대 부호의 자리에 올랐다.

고객 속인 사이트 폐쇄

소비자에 피해 준 쇼핑몰 등 내년부터 처벌 강화

소비자를 속이는 인터넷 사이트는 강제 폐쇄된다. 관련 사업자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소비자 관계법들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제재하려는 것이다. 계약 취소·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징역 등 형사적 제재가 규정된다.

사기 인터넷 사이트나 소비자를 속이는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한다. 공정위는 위법 혐의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로 판매 중지, 사이트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조물책임법도 개정한다. 현재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법원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추세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조심조심 119특수구조단 대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 영등포수난구조대에서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현역병 입영일 17일부터 선착순 접수

병무청은 2013년도 현역병 입영희망 일자를 1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3개 지방병무청별로 선착순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충청·제주·호남·강원 지역은 17일, 인천·경기·영남 지역은 18일, 서울은 20일 각각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 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입영 연기자가 아닌 현역병 대상자가 입영 일자를 선택하지 않으면 오는 24~26일 병무청이 직권으로 입영 일자를 결정해 28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내용이 공개된다.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도 11일 오전부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집 일시와 복무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文 손잡은 'MB정부 일등공신' 상도동계 인사로 이명박정부 탄생의 일등공신 역할을 한 김덕룡(왼쪽)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이 10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만나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朴 "토론이 스무고개냐?" 李 "6억원, 세금냈나?"

'돌직구' 오간 2차 TV토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대선후보 초청 제2차 TV토론을 주도했다.

10일 박·이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참여한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된 분이 세금도 자기 돈으로 내지 않았으면서 서민에게 징세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후보는 18년 간 청와대 생활을 끝낸 박 후보가 1981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평 넘는 집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서 돈이 있던 시절인데도 왜 세금을 내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였다.

박 후보는 "이 후보는 1차 토론 때 했던 질문을 다시 하고 주제와도 어긋난 질문을 해 전파낭비를 하고 있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박 후보는 또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못 받는 국민의 규모 등을 묻는 이 후보 질문에 "대선후보 토론은 스무고개가 아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지 숙제 확인하듯이 하는 대선 토론을 국민은 보고싶어 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5년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 5개 반 민생법안과 예산인 날치기를 해 민생이 파탄 났다"며 '이명박근혜 정권 비판론'을 제기했다. 이어 박 후보는 "지금 부동산 거품이 꺼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다"며 "그에 대한 국민의 실망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앞선 1차 토론에서 박근혜 저격수로 주목을 끈 이 후보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부를 세습하는 것과 박 후보가 권력을 대물림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박정희 정권과 결탁해 사가된 냉장고 빈수레면서 성장한 것이 재벌"이라는 등 돌직구 발언을 연이어 던졌다.

/김유리기자 grace1\[0\]@metroseoul.co.kr

박근혜 지지설 박주선 "지지자와 상의후 결정"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자신의 새누리당 입당 및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한때 박 의원이 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과 함께 새누리당에 입당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왔다.

일부 언론은 이날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반대하는 박 의원의 지지자들이 신으로 끌고 가 억류하고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헌법기관으로 그 정치적 행보는 지지자들과의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할 수 없다"며 "향후 입장을 곧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동호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손돈로 27길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 편집인	남 궁 호
사 장 ･ 편집인	김 주 학
광고국장 직대	김 한 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92

2002년 5월 3일 창간 2002.5.28 등록번호 서울가 00007

安 "다음 정부 임명직 안 맡겠다"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다음 정부에서는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안 전 후보는 10일 오후 전주시 전북대 실내체육관 앞에서 학생·시민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새 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안 전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백의종군의 연장선상에서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새 정치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이 필수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면서 "정치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돼야 하며 경제개혁은 모든 사람들 잘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12월 19일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소중한 날"이라며 "혹시 주변에 안철수가 사퇴해 투표 안 하겠다고 하는 분 있다면 제가 꼭 투표를 부탁드린다고 전해 달라"고 덧붙였다. /배동호기자 eleven@

방송대 4년간 영화 4편 찍는 '악발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혜 나눔 인생 배움 캠페인 ④ 미디어영상학과 '학발' 스터디그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학발' 스터디 회원들이 영상계에 출품하기 위한 영화를 만들고 있다

탭댄서·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업 학생들 매주 모임
방학 때마다 학년별 워크숍 열어 영화 한편씩 제작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의 대학로에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에서 10시30분까지 '미디어영상'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인재들이 모여든다. 이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학과발전위원회(학발)' 스터디 그룹 소속 회원이다.

삼순이 아빠로 유명한 배우 명봉학(49)씨가 '학발' 회장을 맡고 있어 모임을 할 때면 더욱 눈에 띈다. 명 회장은 "대학로 전용 스터디 카페에서 룸을 4칸 빌려 학년별로 모인다"며 "같은 시간대에 모이다 보니 공부와 더불어 친교의 시간도 된다"고 말했다.

공부 방법은 학생들이 한 과목씩 맡아 발제를 하고 요점을 정리한다. 서로가 선생이자 학생이 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댄서, 배우, CF 감독, 사진작가, 웨딩전문가, 편집전문가, 바리스타, 영상방리사,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학생들이 빠듯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미디어영상학과는 해마다 큰 행사 두 개를 치른다. 1학기에는 1박2일에 걸쳐 학술제가 진행된다. 교수나 강사가 학생들과 함께 참여해 특강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학습과 친목을 다진다.

2학기 때는 영상제를 개최한다. 특히 지난달 개최된 영상제에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동영상 광고, UCC, 29초 초단편 영화, 사진 등 총 6개 부문에서 공모했다. 개인·팀이 참여해 90개 이상의 작품이 접수됐다.

'학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참여해 영화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4학년 이소정(2?)씨가 시나리오를 쓴 '어울림'이라는 작품이다. 사망한 친구의 시인과 연관된 친구들의 사연을 풀어낸 10분 길이의 미스터리물이다. 제작비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조달했고 대부분은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명 회장은 "학과 특성상 실습을 많이 하고 싶어한다"며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방학 때 영화 워크숍을 통해 학년별로 한 편씩 총 네 편을 찍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발'의 에너지는 추위도 녹일 정도로 뜨거웠다. /김승리기자

실습위주 교육… 졸업 후 진로 무궁무진

■ 방송대 미디어영상학과는

방송·광고·멀티미디어·저널리즘·영화 분야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21세기 정보사회의 핵심 분야인 미디어영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커리큘럼은 미디어 이론·방송·광고·저널리즘·멀티미디어·영화이론 분야 31개 전공 과목을 개설해 각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국 각 지역 대학은 디지털 촬영 및 편집 장비를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실습이 가능하다. 이론과 실기 교과목이 구분돼 있어 선택 수강도 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방송사·신문사·독립 프로덕션·광고홍보대행사·웹디자이너·영화제작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관련 전공 분야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다.

문의 02) 3668-4710
http://mas.knou.ac.kr

metro Mexico

En el DF, la construir s

metro HongKong

垃圾費每月4

홍콩도 쓰레기 종량제 도입할 듯

홍콩의 쓰레기 매립지가 7년 후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 쓰레기 발생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실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대중들의회는 실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가 이르면 2016년 도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1인 티미해이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홍콩 3인 가구는 월평균 약 40홍콩달러의 쓰레기봉투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metro Canada

'I was paralyze

병원서 헌혈 캠페인 벌이는 산타

최근 캐나다 밴쿠버의 한 종합병원에 산타클로스가 등장, 선물 꾸러미 대신 푸짐한 음식 보따리를 풀어 놓으며 헌혈 동참을 호소했다.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린지 커팅은 산타클로스를 반갑게 맞으며 감사를 건넸다. 커팅은 몇 달 전 수혈로 목숨을 건진 것을 계기로 음식 기부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그는 1만4000명의 시민들에게 기부받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담배꽁초 물어가는 참새들

멕시코서 둥지 만드는 모습 목격… "해충 퇴치 효과 탁월하고 단열재 역할도"

담배를 물어이는 새들이 발견돼 화제다. 이 새들은 사람처럼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충을 쫓기 위해 담배의 독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메트로 멕시코시티는 "멕시코국립자치대 환경연구소 팀이 담배꽁초로 둥지를 만드는 새들을 발견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발견은 영국과학원의 학술지 '바이올로지 레터' 최신판에 게재될 정도로 학계의 관심도 모였다.

연구팀에 따르면 담배로 둥지를 만드는 새는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여온 유럽참새(passer domesticus)와 아메리카 중북부에 서식하는 붉은가슴왕진이(carpodacus mexicanus)다. 이 새들은 담배 필터에 남아 있는 니코틴 성분을 이용해 해충을 쫓아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의 콘스탄티노 마시아스 가르시아 박사는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본캠퍼스 주변을 조사한 결과 새들이 쓰레기통이나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주워 모아 둥지를 만드는 것을 발견했다"며 "새들은 담배꽁초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리로 분해한 필터만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둥지 하나에 담배꽁초 48개가량에서 나온 필터가 사용된다"며 "담배꽁초가 들어간 둥지에서는 진드기와 기생충이 확연히 감소한다는 사실도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담배가 해충을 쫓는다는 사실을 새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가르시아 박사는 "새들이 해충을 퇴치하는 냄새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운 후 필터에 남는 성분에 이끌린다"며 "담배 필터는 해충퇴치제뿐만 아니라 단열재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배 필터 성분이 새들이 일반적으로 둥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깃털이나 가죽 등과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둥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 담배 필터의 독성이 새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낼 생각이다.

가르시아 박사는 "어미새가 알을 품는 시기에는 새끼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둥지에서 보내고 유독성 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며 "담배가 사람에게 유해한 것처럼 새에게도 유해한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리=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metro PuertoRico

Armadas ha para sentirs

잇딴 강력 범죄에 총기 사는 여성들

최근 푸에르토리코에서 총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총기의 주요 소비자가 여성이라는 점이다.

메트로 산후안이 6일(현지시간) 만난 한 무기 판매업체 지점장은 "2011년 중반 이후 악질 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총기 판매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상업 변호사 의사 등 한 번도 총기를 소유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여성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9mm 두께의 총이며 가격은 550~600달러(약 60만~65만원)다.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선 푸에르토리코경찰청의 무기등록소에서 무기휴대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6235건이 승인됐다.

허가서는 소유허가서와 휴대허가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소유허가서 신청인은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절차와 함께 범죄경력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절차비용은 300달러이고, 120일이 소요된다.

반면 휴대허가서 신청인은 1심재판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절차 비용은 1000달러에서 많게는 9000달러에 이르며 시간도 한 달 정도 소요된다.

무기 판매소에서 만난 한 여성은 "지난 5월 네 명의 무리에게 살해당한 호세 엔리케 기자가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처참하게 죽진 않았을 것"이라고 총기 구입 이유를 설명했다.

/호세 카를로스 벨로 기자

정리=이국명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월급 26만원 받으려 공장서 쪽잠
- 날치기·강도 택시기사가 잡는다
- 세계 최고 장난감 10종 뽑아보니…

비락

언제나 간편하게 내 손이 밥상!

건조밥과 건더기스프로 3분이면 맛있고 따뜻한 컵밥이 내 손에!
이제 회사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든든하고 영양 많은 비락 컵밥하세요.

비락 즉석 컵밥
치킨카레맛
80g (345 kcal)

더 든든한, 비락 즉석 컵밥

50년 건강기업 비락이 만든 비락 즉석 컵밥.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들어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충 때우지 말고 한끼를 먹어도 컵밥하세요.

치킨카레맛

해물맛

"가까운 편의점에서 만나보세요"

Kosdaq

12/4	12/5	12/6	12/7	12/10
502.71	496.50	488.03	481.22	489.50 (+8.37)

Nikkei (일본)
9533.75 (+6.36)

Hang Seng (홍콩)
22276.72 (+85.55)

Shanghai (중국)
2083.77 (+21.98)

Dow Jones (미국)
13155.13 (+81.09)

EXCHANGE RATE

통화	매매기준율
달러	1077.50
엔(100)	1307.33
유로	1390.84
위안	172.97

외인 '산타랠리' 선물줄까

지난달 20일부터 순매수 저평가 대형주 관심 집중

포드 2013년형 '퓨전' 출시 포드코리아는 10일 중형 세단 2013년형 '퓨전'을 출시했다. 기존 엔진보다 크기를 줄이고 힘과 연료 효율성을 높인 에코부스트 엔진을 탑재했다. 3845만원부터. /박성훈기자

외화예금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 자금이 몰려오고 있다. 엇갈린 행보 속에 증권시장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383억8000만 달러(약 41조4000억원)로 사상 최대치였던 10월 말의 393억9000만 달러에 비해 10억1000만 달러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11월말 수입대금 결제 수요가 몰려 일시적으로 외화예금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증시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외국인 자금이 순매수로 돌아서 이달 7일까지 약 1조원의 순매수가 몰려왔다.

앞서 외국인 순매수는 연초와 8~9월에 10조원 정도 들어와 각각 연초랠리와 서머랠리를 이끌었다. 12월에는 '산타랠리'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외국인 순매수 증가가 연말 배당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로 눈을 돌려 보면 그나마 한국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표현됐다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 김동원 소장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주식이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이 아니라 대형주에 집중돼 있다"면서 "내년을 대비해 현재 저평가돼 있는 우량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송지훈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갤럭시노트 데이' 축제 열린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갤럭시노트 시리즈 고객들을 초청해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22일 서울, 부산, 광주에서 '갤럭시노트 데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마켓 크리에이터'로서 스마트 디바이스의 새로운 카테고리로 제시했던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작년 12월 갤럭시노트가 출시돼 성공을 거뒀고, 올해 9월에는 갤럭시노트 II를 시장에 선보였다.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갤럭시노트가 글로벌 1000만 대를 돌파한 데 이어 갤럭시노트 II가 출시 2개월 만에 500만 대 판매를 기록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의 새로운 카테고리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코엑스 갤럭시존에서 열린 갤럭시노트 데이 홍보 행사 모습.

행사 내용과 티저 영상은 www.samsung.com/sec/galaxynote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성기자

스마트 & 그린 건설산업

에너지 제로 주택 '제너하임' 눈길

대우건설 '동탄 푸르지오 하임' 단지내 선봬

"건설산업은 보통 산을 깎고 공사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을 떠올리는데, 에너지 자체 생산과 절감으로 소비 에너지가 전혀 안 드는 집이라니 건설산업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탄 푸르지오 하임에 위치한 '제너하임(ZENER HEIM)'에 방문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제너하임에 담겨진 70가지의 친환경 건설 기술 때문인데 대우건설은 지난 2010년 에너지 소비율 제로를 실현한 친환경 주택 '제너하임'을 선보였다. 제너하임이란 '제로에너지'와 '집'을 뜻하는 독일어 '하임'의 합성어다.

이 주택은 전력, 급탕, 환기 등 소비되는 모든 에너지 소비를 60%의 자체 생산 에너지와 40%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절감 에너지로 충당해 '총 에너지 소비율'이 제로가 되도록 설계됐다.

제너하임에서는 잉여전력 생산도 가능하다. 189.85㎡(57평형) 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과 한 달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700kWh인 데 반해 제너하임은 생산 전력이 624kWh, 절감 전력이 230kWh로 154kWh의 전력이 남는다. 남는 전력은 푸르지오 하임 단지 공용 전력으로 공급하고 있다.

대우건설 '제너하임' 전경.

제너하임은 국내 최초 실제 거주 가능한 친환경 주택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입주민이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수집한 각종 데이터는 2020년 제로에너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illegible]기자

"평생직업 20대도 도전하세요"

직업 ④ 독서논술지도사

"7년여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책을 통해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문화센터에서 하는 독서논술지도사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직접 가르치겠다는 생각이 컸죠. 그런데 이젠 당당한 직업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에서 독서논술을 지도하고 있는 김혜영(44)씨는 요즘과 같은 고용한파기에도 걱정이 없다. 평생 직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주부는 물론 20대 젊은 구직자들도 충분히 도전할 만 하다고 권하는 김씨에게 독서논술지도사의 궁금증을 물어봤다.

3~6개월이면 자격증 취득… 월 수입 200만원 거뜬

▶독서논술지도사란.

▶▶유아에서 초중생까지 독서 프로그램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생각하기 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책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고르는 눈과 책을 보는 시각을 길러주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근 입시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논술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준다.

▶필요한 학력, 전공, 자격증은.

▶▶물론 국문과 출신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 전공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얼마 전만 해도 가정주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20대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www.hanuricampus.com)를 비롯해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wrd.seoulwomen.or.kr),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www2.yonsei.ac.kr/extension)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따는 데는 3~6개월 정도 소요된다.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경우 합격률은 60% 내외다.

▶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하루 2팀(1팀 4명 기준·주 5일) 수업을 하는 경우 월 수입은 200만원 내외다. 주변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보다 더 벌 수도 있다. 자기 집에서 수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독서논술지도사가 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스스로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감성도 중요하다.

독서논술지도사는 아이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다 보면 스스로도 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은퇴 걱정 없이 평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무척 매력적이다.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독서논술지도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갖기 바란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광전자 부품산업 글로벌 선두주자

이번주 채용기업

SEKONIX 세코닉스

㈜세코닉스는 우리나라 광전자 부품산업의 선두 주자로 1988년 설립 이후 플라스틱 광 디바이스 및 광 컴포넌트 등을 개발·생산해왔다. 또 개인 휴대용 정보통신기기용 초소형 이미지 모듈 및 렌즈와 DLP, LCD용 광학모듈 등을 생산해 세계 각국에 납품하고 있다.

㈜세코닉스는 현재 사출성형, 연구기술 부문(기구·광학 설계 등), 관리부, 생산직 등 각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경력직을 채용하나 연구기술 부문과 생산직은 신입도 지원 가능하다. 입사 지원자는 16일까지 각 분야 채용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860-1010, mashum@sekonix.com

/커리어 제공

1등 인터넷 서점 인터파크 도서 주간 베스트셀러

1위 2위 3위 4위 5위

인터파크 이 주의 추천 도서

승자독식의 세계, 모두 승자되는 법

초협력자

마틴 노왁·로저 하이필드 / 사이언스북스

'초협력자'는 이기와 이타, 배신과 협력 사이의 갈등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게임에서 이기심이라는 금괴옥조를 거스르고 어떻게 경쟁 대신 서로 협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책이다.

하버드대학교의 수학과 및 진화생물학과 교수인 저자는 20여 년간 수학과 경제학, 진화 생물학, 네트워크 과학 등을 넘나들며 협력의 세계를 탐험해온 결과, 배신과 갈등을 넘어 협력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법칙을 밝혀냈다. 아울러 협력이 우리 인류와 인류가 지닌 언어, 도덕, 종교, 민주주의 등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낳은 40억 년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창발적이고 건설적인 힘이며, 지구상의 그 어떤 종보다도 우리 인간이 협력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할 줄 아는 존재, 바로 초협력자라는 새롭고 도발적인 주장을 내놓는다.

저자는 협력의 다섯 가지 법칙을 인식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다듬고 확장한다면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 승자독식으로 위기를 맞이한 오늘날의 인류 사회를 변화시키고 결국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으리라 말한다. 당신의 성공이, 당신이 속한 조직과 국가와 우리 인류의 미래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바로 초협력자인 우리 모두의 손에 말이다.

화제의 신간

캐주얼 베이컨시

조앤 롤링 / 문학수첩

해리포터 신화를 창조하며 21세기 최고 인기 작가로 우뚝 선 조앤 롤링. '캐주얼 베이컨시'는 그녀의 첫 성인소설로 출간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해리포터를 벗어나 자신의 문학 세계를 유감없이 보여준 이번 신작은 낯설면서도 반갑다.

응답하라 PD수첩

PD수첩 제작진/휴먼큐브

MBC 파업, PD수첩을 향한 단세적이고 조직적인 탄압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이 MB정부 4년간의 방송 통제를 폭로한다. 적은 PD수첩 제작진이 방송으로 말하지 못했던, 하고 싶던 이야기들과 특 지적이고 적나라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을 비춰준다.

보이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강하련/홍익출판사

고전에서 삶의 본질을 파헤쳐온 저자는 '장자'의 지혜를 깊이 있는 인문학적 통찰과 에세이의 감성으로 버무려 들려준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과 그 안에 응축된 장자의 메시지를 읽노라면 어느새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 장자가 선뜻 다가와 독자들의 길을 응원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속 시원한 만남

'우쿨렐레 비틀즈' 펴낸 조태준의 미니콘서트

우쿨렐레 고제의 아이콘이자 행복한 스테디셀러가 된 '하와이 우쿨렐레'의 저자 조태준이 국내 최초의 비틀즈 악보집 '우쿨렐레 비틀즈' 출간을 기념하여 한겨울의 우쿨렐레 워크숍과 미니콘서트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일시: 2012년 12월 20일(목) 오후 7시
장소: 강송동 스테이지팩토리 홀

비스킷 신간(eBook)

죽음이란 무엇인가 셸리 케이건 / 엘도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습과 종교적 해석을 배제하고 논리와 이성으로 죽음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고찰한다. 궁극적으로는 '삶'을 이야기하며 "죽음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불을 지피다 잭 런던 / 한겨레출판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작가와 아동문학 작가라는 상반된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 작가 잭 런던의 '불을 지피다'는 저자의 유년 시절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원초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문장으로 인간성의 본질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주의 특가 도서

포 아워 바디 티모시 페리스/걷는나무

세계적 베스트셀러 '4시간' 저자 티모시 페리스가 20여 년간 몸뚱이 놓고 184명의 실험으로 검증한 혁신적 건강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어내는 원칙을 담았다.

판매가 2만8000→1만4000원 (50% 할인)

인도 베다수학 세트 마키노 다케후미/보누스

속도감과 정확도가 동시 향상되는 기적의 연산법. 책은 인도대사관이 공인한 것으로 복잡한 계산과 합리적인 수계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인도 베다수학을 소개한다.

판매가 1만7800→8900원 (50% 할인)

www.djsi.or.kr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우수 기업

100년 뒤에도 지속가능할 대한민국 대표 초우량 기업입니다.

– 2012/13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DJSI는 이 기업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과 성과를 인정하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1999년 발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경영 표준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난 14년간 전 세계 유수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 평가 및 투자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혁신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DJSI의 우수성

-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의 종합적 기업가치 제고
- 세계적 표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글로벌 생존력 향상
-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라운드를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주)강원랜드 | KIA | 농심 | 동부화재 | DGB금융그룹

삼성생명 | SAMSUNG 삼성전기 | 삼성증권 | 신한금융그룹 | AMOREPACIFIC

S-OIL | SK telecom | STX PanOcean | LG전자 | GS건설

KB금융그룹 | KDB대우증권 | KCC | kt | KT&G

한국가스공사 | 한전KPS | Hankook | HYUNDAI MOBIS | 현대건설

※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뚜레쥬르 출점 자제 선언

CJ푸드빌, 총량제 수용 해외시장 진출에 주력

CJ그룹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10일 국내 매장수 확장 자제를 선언했다.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사회적 여론에 부응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스스로 확장 자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영업 제빵업자들이 주축이 된 대한제과협회 등은 골목상권을 보호하라고 주장하며 프랜차이즈 빵집의 확장 자제를 요구해 왔다.

CJ푸드빌은 대한제과협회가 요구했던 총량제를 수용할 방침이다. 총량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증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뚜레쥬르 가맹점은 1281개로 파리바게뜨(3095개)에 이어 두 번째다.

CJ푸드빌 허민회 대표는 "일부 사업적 이익은 포기하더라도 동반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2017년까지 전 세계에 4000여 개 매장을 연어 빅도날드, 암과 같은 글로벌 외식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뚜레쥬르는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해 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우즈벡 고려인 놀이공원 첫 나들이 1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열린 생애 첫 놀이공원 나들이 초청 행사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놀이기구를 타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들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도록 응원하고자 롯데월드와 한-중앙아시아교류진흥회가 함께 마련했다.

피버그린 '산타선물' 증정

세정그룹의 아웃도어 브랜드 피버그린이 크리스마스 선물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피버그린 디윤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기능성 모자와 양말을 증정한다. 또 23일까지 이벤트 포스터 리플릿 영수증에 있는 이벤트 QR코드를 통해 피버그린 퀴즈 이벤트에 응모하면 피버그린 디윤재킷, 동산 양말, 피버그린 모바일 할인 쿠폰 등을 선물로 준다. 당첨자 발표는 24일.

써스타, 이상우와 함께 '레쓰비 카페타임'

롯데칠성음료가 캔커피 '레쓰비 카페타임'의 모델로 인기 걸그룹 씨스타와 배우 이상우를 캐스팅하고 새로운 TV 광고를 선보인다.

직장인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응원하기 위해 씨스타가 '피트 크루'로 변신해 직장인을 찾아간다는 내용. 피트 크루란 F1 레이싱에서 여럿이 한 몸처럼 움직여 순식간에 경주차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광고와 더불어 직장인의 비즈니스를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랜드 힐튼 4색 겨울 패키지

그랜드 힐튼 서울이 내년 2월 말까지 다양한 겨울 패키지를 선보인다.

윈터 패키지I (17만9000원)을 이용하면 디럭스룸 1박과 함께 에이트리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매종'을 읽는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윈터 패키지II (19만9000원)는 패키지I에서 룸만 슈페리어 룸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윈터 패키지III (33만9000원)는 주니어 스위트룸 1박과 EFL라운지 조식·해피아워 혜택, 사우나 무료 이용 등으로 구성했다. 패키지 3종 모두 수영장과 체련장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윈터 러브 스토리 패키지 (24만9000원)를 눈여겨볼 만하다. 리노베이션된 이그제큐티브 룸 1박과 EFL라운지 조식·해피아워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고급 칠레 와인 '카베르네 소비뇽 리저브'를 제공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모든 패키지는 세금 및 봉사료가 별도이며 크리스마스 기간(20~25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문의 (02)2287-8400

가슴쓰림과 소화불량을 동시에 완화[1]

- 타는듯한 복부와 가슴쓰림에 빠르게 느껴지는 효과[2]
- 가슴쓰림을 유발하는 'Acid pocket'을 중화[3]
- 고유의 물리적 방어 층 형성[4]
- 4시간* 지속 효과[1]

Reckitt Benckiser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수술

지구촌가정훈련원 퇴행성관절염 앓기환자 지원

치료비 부담탓 병키운 노년층에 희망의 손길

요즘 같은 추운 한겨울에는 뜨끈뜨끈한 온돌방 생각이 간절하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다 보면 하루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마저 든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온돌방 좌식 생활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식 문화로 인해 60세 이상 인구의 80%가 겪게 되는 만성질환이 있다. 바로 퇴행성관절염이다. 퇴행성관절염은 무릎과 무릎 사이 연골이 닳아 뼈가 부딪히는 질병을 말한다. 연골이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퇴행성관절염 초·중기 단계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는 퇴행성관절염 말기로 발전된다.

연골이 다 닳아 뼈와 뼈 사이가 완전히 달라붙은 말기의 경우엔 통증이 심하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약물이나 주사치료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유일한 치료법은 닳아버린 무릎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이다.

(사)지구촌가정훈련원은 퇴행성관절염 말기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공관절수술을 해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수혜 대상이다. 지구촌가정훈련원으로 신청자의 증상과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담당자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지구촌가정훈련원 이희범(사진) 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에게 인공관절수술을 해주는 질병의 치료 차원을 넘어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할아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캠페인을 주최하는 지구촌가정훈련원은 1996년 행복의 첫째 조건인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13년간 부부행복학교, 워크숍 프로그램, 가정사역지도자훈련 등을 진행해왔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컨설팅과 소그룹 운동을 펼쳐왔다.

문의: 031)897-0094

/김민지기자

◆ 인공관절수술이란

퇴행성관절염은 무릎의 하중을 흡수해주는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끼리 부딪혀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60세 이상 노인 80%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말기로 진행되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조차 제한을 받게 된다. 심한 경우 다리가 O자 형태로 휘게 되기도 한다.

약물이나 주사 요법 등으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퇴행성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관절치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인공관절치환술은 다 닳아버린 무릎관절을 금속으로 만든 인공관절로 대체해 주는 수술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What's New health

관절에 좋은 '로즈힙'

세노비스가 칠레 안데스산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로즈힙으로 만든 '관절에 좋은 조인트 플러스 로즈힙'을 선보였다. 로즈힙 열매에 추출물이 아닌 건조된 열매의 과육은 물론 씨와 껍질까지 모든 열매 성분을 통으로 갈아서 분말화한 식물성 제품.

비타민C 든 '판콜비타 정'

동화약품이 비타민 C가 함유된 종합 감기약 '판콜비타 정'을 출시했다. 감기의 회복 기간 단축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비타민 C는 면역 기능 강화, 항산화 작용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충혈 제거 효과가 있는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이 코감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다.

www.olympix.co.kr

수익율 연 8% 확정 보장!

수익형 레지던스 호텔 올림픽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

평창 동계올림픽 프리미엄의 핵심! 레지던스 호텔 올림픽스 분양!

- 2013년 상반기 올림픽특구 지정 예정(올림픽게이트웨이지구 內 위치)
- 동계올림픽 메인스타디움, 올림픽기념관 등이 1km 이내 위치
-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장 밀집 예정인 알펜시아리조트, 용평리조트의 초입
- 서울-강릉 KTX개통(예정)으로 평창까지 50분 이내 도착 (서울-강릉 66분 예상)
- 제2영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 용이
- 외국인 관광객 천만명 돌파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에 +알파 수익 기대

분양문의 1666-2018

시행 (주)씨엠씨월드 시공 청오건설(주) 신탁 아시아신탁 협력사 인터파크 · HOTEL N JOY · Onnyhotel

metro entertainment

막 들이대는 연기 슬럼프 확 날렸죠

반창꼬 서 털털한 여의사 변신 한효주

평주위 속에 홍보 강행군을 펼치면서도 연신 따스한 미소를 잃지 않는 이유를 묻자 한효주(25)는 "막 사춘기를 끝냈기 때문"이라는 엉뚱한 답을 내놓았다. 이유 없이 슬럼프가 찾아왔을 무렵 영화 '반창꼬'(19일 개봉)는 훌륭한 치료약이 됐고, 억눌러 왔던 내면을 마음껏 펼쳐 보이는 기회를 줬다.

"캐릭터 파격 즐기면서 촬영"

"올해 중반쯤 사춘기가 뒤늦게 찾아왔어요. 17살에 연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학창시절을 제대로 겪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 다 경험하는 사춘기도 모르고 지났죠. 그런데 올해 들어 갑자기 그런 징후가 나타났어요."

'연기를 꼭 해야만 하나', '왜 예뻐 보이려 노력해야 하나', '항상 착한 모습만 보여야 하나'라는 고민이 이어졌다. 어느 해보다 일이 밀려들었지만 활동의 이유와 의욕을 찾을 수 없었다.

'반창꼬' 촬영에 들어간 무렵에도 마음은 계속 불안했다. 그러다 담담하게 시작했던 작업은 점점 활력을 불어넣었고, 서서히 자신을 변화시키기까지 했다.

"영화에서 미수(한효주)가 어느샌가 강일(고수)과 사랑에 빠지듯이 엄청난 애착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크랭크업이 다가올 때는 남은 회차를 카운트다운 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였죠."

한효주는 이번 영화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자유롭게 쏟아냈다. 의료사고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의사 미수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기 위해 소방대원 강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그러는 사이 점점 진짜 사랑에 빠지는 인물이다.

강일을 내 남자로 만들기 위해 폭탄주 세례를 퍼붓는가 하면, 다리 난간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몸싸움에 욕지거리도 서슴지 않는다.

"트렌디 드라마 주인공 하고싶어"

"최근에 출연했던 '광해' 오직 그대만 '동이'에서 굳어진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청순하고 단아하거나, 절제하고 아픔을 억누르는 여자만 연기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 모습도 내 일부분이지만 '반창꼬'에서는 이런 성격도 있다는 걸 꺼내 보이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많은 촬영 일정을 전북 전주에서 소화하면서 합숙이 잦았고, 촬영 현장은 늘 MT 분위기였다. 고수는 남매처럼 챙겨줬고, 소방서 반장 역으로 출연한 마동석은 '친오빠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든든했다.

"연기도 즐기면서 했다는 게 이번 작품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보람이에요. 이전까지는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었죠. 잘하려는 욕심과 고민에 늘 갇혀 있었지만 이제야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1200만 관객을 동원한 '광해' 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또 다른 영화의 개봉을 기다리고, 내년 상반기 개봉할 영화 '감시' 촬영에도 한창이다. 연기 생활 9년 차를 맞아 최고의 황해를 보냈다.

"해보고 싶은 캐릭터를 다 잡아서 쉴 새 없이 연기했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죠. 2012년은 최고였다고 말할 것 같아요. 욕심이 있다면요? 내년에는 제 또래 남자배우들과 사랑을 나누는 트렌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라운드테이블) 디자인/정지열

Star bag

'화이'서 킬러역할 촬영 돌입

여진구가 장준환 감독의 신작 '화이'에 합류해 10일 첫 촬영을 시작했다.

범죄집단이 납치한 아이를 아들처럼 키우는 이야기로 그는 극중 다섯 명의 아빠들에게 킬러로 키워진 소년 화이를 연기한다. 충무로의 연기파 배우 김윤석이 범죄조직의 리더 석태 역을 맡고 조진웅, 김성균 등이 힘을 보탠 이 작품은 내년 개봉 될 예정이다.

'그래도 당신' 종영 후 포상휴가

배우 신은경이 SBS 일일극 '그래도 당신' 종영 후 포상 휴가를 떠났다.

이 드라마에서 차순영 역을 맡아 높은 시청률을 견인했던 그는 3일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제작사의 배려로 최근 동료배우들, 제작진과 휴식 차 코타키나발루로 여행을 떠났다.

로커 변신 '개가수' 비난 개그 승화

KBS2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용감한 녀석들'의 멤버들이 헐렁그룹 슈프림의 멤버 이센스의 '개가수(노래하는 개그맨) 비난'을 풍자하는 듯한 개그를 선보여 화제다. 이들은 9일 방송에 로커로 변신해 "욕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바티칸 박물관전에 목소리 기부

배우 손현주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바티칸 박물관전에 목소리를 기부했다.

그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르네상스 시대 대표작들의 특징을 진중한 목소리로 오디오 가이드에 담았다. 오디오 가이드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장애어린이 합창단 에반젤리에 기부될 예정이다. 전시는 내년 3월 말까지 이어진다.

2012.12.22토 ~23일 국립극장 달오름 토 15:00, 19:30 일 15:00

관람료 | R 5만원 S 3만원

2012 국립오페라단 창단 50주년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 National Opera

국립오페라단 창단 50주년 기념

2012 오페라 갈라

OPERA GALA

지휘 김덕기, 이용탁 연출 김홍승 안무 김용걸

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의정부시립합창단

무용 김용걸댄스씨어터

프로그램

G. Bizet | Carmen 카르멘

W. A. Mozart | Così fan Tutte 코지 판 투테

이용탁 창작오페라 | 청

R. Wagner | Der fliegende Holländer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G. Verdi | Nabucco 나부코

12. 29 토 ~ 30 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3:00PM · 7:30PM

기획·제작 | 국립오페라단

협찬 신한카드 POSCO SeAH

티켓 R 10만원 S 8만원 A 6만원 B 3만원 C 1만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청소년 40% 대학생 20인단체 30%

예매 SAC Ticket 580 1300 인터파크 1544 1555 Club BALCONY 1577 5266

싸이 오바마 앞 공연

'크리스마스 인 워싱턴' 피날레 장식 ·합동 말춤은 불발

싸이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앞에서 '강남스타일'을 불렀지만 오바마의 '말춤'은 없었다.

싸이는 10일 미국 워싱턴DC 국립건축박물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인 워싱턴 2012'에 초대받아 피날레 무대를 장식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붉은 반짝이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으며 순록 뿔 모양을 머리에 단 댄서들과 공연했다.

크리스마스 인 워싱턴 에 참석한 싸이가 행사 전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AFP 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부인 미셸 여사, 두 딸 말리아·사샤와 객석에서 싸이의 무대를 관람했지만 '말춤'을 흉내 내지는 않았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 따르면 공연 후 오바마 대통령과 싸이가 잠깐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초 WZID FM 라디오 방송 기자가 '강남스타일'에 관해 질문하자 "말춤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해 이날 공연에 관심이 쏠렸다. 싸이 역시 영국 라디오 캐피탈FM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말춤을 가르쳐 주겠다고 전해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무반응은 최근 미국에서 논란을 빚으킨 싸이의 '반미 랩' 탓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주한미군 반대 집회에서 부적절한 가사의 랩을 불렀던 가수를 예정대로 출연시킨 데 이어 그 가수의 춤을 추어 화답할 경우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가족들은 디이에나 로스의 무대에 함께 올랐으며, 미셸 여사는 데미 로바토·크리스 만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크리스마스 인 워싱턴'은 미국 대통령 부부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는 연례 행사로 21일 미국 전역에 녹화 방송된다. /유순호기자 sure@metroseoul.co.kr

유럽팬이 뽑은 최고의 K-팝 그룹은 빅뱅·2NE1

YG 원투펀치 빅뱅과 2NE1(사진)이 유럽 팬들이 뽑은 최고의 K-팝 그룹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유럽 팬들의 온라인 투표를 집계해 최근 발표한 '제3회 소리브드 어워즈 유러피안 K-팝 어워즈'에서 각각 남녀 그룹 부문 최고 지지를 얻었다. 빅뱅은 30.4%의 득표로 2위 슈퍼주니어(22.6%)를 제쳤으며, 2NE1은 에프엑스(12.5%)를 꺾고 45.2%의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반지의 제왕' 프리퀄…비주얼은 상상 그 이상

Film Review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호빗: 뜻밖의 여정

1950년대 TV의 등장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활기를 되찾았던 계기는 운동장만한 대형 스크린이 특징인 시네마스코프 촬영 방식의 도입이었다. 또 인터넷 다운로드의 보급으로 관객 감소 추세가 역력했던 2000년대 들어 일시적으로나마 다시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데는 '아바타'로 대표되는 3D 영화의 공이 컸다.

13일 개봉될 피터 잭슨 감독의 '호빗: 뜻밖의 여정'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기술의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를 제시한다. 1초당 48프레임의 하이 프레임 레이트(HFR) 촬영 방식으로 담은 화면이 '영화는 보는 것'이란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어 '영화는 경험하는 것'이란 새로운 정의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줄거리의 시작은 잭슨 감독의 대표작인 '반지의 제왕' 시리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리퀄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쉽다.

전작에서 조카 프로도(일라이저 우드)의 위험한 여정을 부추겼던 삼촌 빌보 배긴스(이안 홈)가 60년 전을 회상한다. 호빗족으로 젊은 날 안락한 생활에 젖어 살았던 빌보(마틴 프리먼)에게 어느 날 갑자기 회색 옷의 마법사 간달프(이언 맥켈런)가 찾아온다. 간달프는 사나운 용 스마우그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떠나는 난쟁이족과 같이 가기를 권유한다.

빌보는 간달프의 제의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지만, 간달프는 "스마우그가 호빗의 냄새를 맡지 못하므로 네가 필요하다"며 설득을 멈추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합류를 결심한 빌보는 위기가 거듭될수록 자신도 몰랐던 용기와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이 영화가 제공하는 비주얼 쇼크는 상상을 초월한다. 스크린을 볼 때의 느낌이 육안으로 실제의 사물을 볼 때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프레임 수가 두 배로 늘어나면서 기존 방식의 오랜 단점이었던 깜박임 현상이 줄어들어서인데, 이를테면 원화의 개수가 많은 애니메이션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여기에 선명하면서도 눈이 피로하지 않은 최첨단 3D 효과까지 더해져 극강의 리얼리즘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왕이면 HFR 3D로 감상하기를 권하는 이유다.

물론 단점도 없진 않다. 간달프·골룸·갈라드리엘 등이 여전히 나오긴 하지만, 아라곤·레골라스·아르웬 등이 프로도를 보좌하던 전작에 비해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내년 겨울과 2014년 여름 차례로 개봉될 2부와 3부가 벌써 기다려진다. 전인미답의 영상 신천지를 하루라도 빨리 밟고 싶어진다. 12세 이상 관람가.

또디

by 정연식

<552>와신상담2

wind8686@naver.com

악동뮤지션 또 일냈다

자작곡 '매력 있어' 듀엣조 1위 차지

SBS 'K팝스타 2'의 남매 참가자 악동뮤지션(이찬혁 이수현)이 또 한 차례 극장을 뒤집어 놓았다.

9일 방송된 경연 [illegible] 기타와 멜로디가 돋보이는 자작곡 '매력있어'로 듀엣조 1위를 차지했다.

심사위원 박진영은 "중학교 1학년이 심사위원을 웃게 만들다니, 이것이야말로 스웨거"라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양현석 역시 "한국 나이로 열네 살인 이수현양의 감성과 모션이 아주 좋다"며 욕심을 드러냈다.

이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이유는 기존 가수들의 노래를 커버하거나 편곡하는 데 그치던 오디션 경연곡을 자작곡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점이다. 자작곡 심사는 참가자들을 비교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음악적 색깔과 역량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 추후 프로 가수로 변신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악동뮤지션의 활약이 돋보였던 이날 방송은 시청률 14.6%(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권보람기자 kwon@

'브아솔' 에이벡스와 계약 맺고 日 진출

국내 최강 보컬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이 일본 정벌에 나선다.

정엽·나얼·영준·성훈 등 실력파 보컬리스트로 구성된 이들은 일본 유명 음반기획사인 에이벡스와 손잡고 계약하고 내년 상반기 일본에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소속사 측은 "첫 앨범을 한국어 노래로 채울지, 일본어로 채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아이돌 댄스 음악과 록이 주도하면서 무너진 일본의 R&B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운아이드소울은 15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전국 7개 도시를 도는 국내 투어에 돌입한다. /유순호기자 suno@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4 How old are you? 나이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표입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201. 저는 당신보다 두 살이 많아요.
202. 제 남동생은 저보다 두 살이 어려요.
203. 당신 가족은 모두 몇 명인가요?
204. 모두 7명이에요.
205. 제 언니가 맏이예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201. I'm two years older than you are.
202. My brother is two years younger than I am.
203.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204. There are seven of us all together.
205. My sister is the oldest.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201~205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몇 명이나 are there in your family?[203]
B There are 4 of us all together.

정답 How many people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My [brother / friend Tom] is 2 years younger than I am.
2. I'm the [oldest / youngest].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To ______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rom Asturion Publishers, contact the Global Rights Department at rights@asturiongroup.com.

(A) join (B) learn
(C) protect (D) obtain

02 Analysts predict that Mendoza Enterprises will ______ become the country's largest steel producer.

(A) soon (B) sooner
(C) soonest (D) as soon as

01. 아스투리언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이 있는 자료 사용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해외 판권 부서에 rights@asturiongroup.com으로 연락해야 한다.
해설 문맥상 '허락을 받다'가 적합하므로 '얻다, 획득하다'를 나타내는 (D) obtain을 써야 한다.
어휘 permission 명 허락 copyrighted material 저작권이 있는 자료 protect 동 보호하다
정답 (D) obtain

02. 분석가들은 멘도자 엔터프라이즈가 곧 그 나라의 최대 철강 생산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해설 동사 결합 구조인 will과 become 사이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이므로 부사인 (A) soon을 써야 하는데,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B), (C), (D)는 부적절하다.
어휘 analyst 명 분석가 predict 동 예상하다 steel producer 철강 생산업체
정답 (A) soon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 하기

1.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 실내

This is a picture of a(n) 이것은 ~의 사진입니다	airport. 공항 meeting room. 회의실 hair salon. 미용실	laboratory. 실험실 warehouse. 창고 cafeteria. 구내식당

• 야외

This is a picture of a(n) 이것은 ~의 사진입니다	beach. 해변 outdoor market. 야외 시장 pier / dock. 부두	lake. 호수 street. 거리 park. 공원

2. 인물의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

A man 남자가 A woman 여자가	has gray hair. 백발이다 has a mustache. 콧수염이 있다 has blond hair. 금발 머리이다 has pigtails. 양갈래 머리이다	has long hair. 머리가 길다 has a beard. 턱수염이 있다 has curly hair. 곱슬머리이다 has a ponytail. 하나로 묶은 머리이다

점수없는 블랙스완!

김연아 201.61 시즌 최고점 받으며 우승 · "피겨여왕 돌아왔다" 외신 극찬

김연아가 10일 새벽 독일 도르트문트의 아이스스포르트젠트룸에서 열린 NRW트로피 대회 시니어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레미제라블'에 맞춰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 여왕' 김연아(22)가 복귀전에서 올 시즌 최고점을 받으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김연아는 10일 새벽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NRW트로피 시니어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29.34점을 받아 전날 쇼트프로그램(72.27점)을 합쳐 종합 201.61점을 기록해 가볍게 우승했다.

이 점수는 이시다 미오(일본)가 전날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작성한 올 시즌 여자 싱글 최고점(196.80점)을 뛰어넘는 시즌 기록이다.

이번 대회 목표로 삼은 최소 TES 48.00점을 가볍게 넘긴 김연아는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자격도 획득했다. 특히 그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 2년10개월 만에 개인 통산 4번째 200점대 기록을 달성하며 '여왕의 귀환'을 선언했다.

관중의 환호 속에서 링크에 들어선 김연아는 '레미제라블'의 웅장한 오케스트라에 맞춰 여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연기를 시작했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에 이어 트리플 플립 점프까지 깔끔하게 뛰어올라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이후 트리플 살코와 트리플 러츠를 무난하게 소화하며 가산점을 챙겼다.

다만 막판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모두 1회전으로 처리해 흔들렸고, 트리플 살코-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엉덩방아를 찧는 실수를 범해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 후 김연아는 "거의 한 시즌을 쉬고 오랜만에 복귀한 터라 200점을 넘길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다"며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얻은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시카고 트리뷴 등 주요 외신도 "스티 기근에 허덕이는 피겨계에 김연아가 돌아왔다"며 피겨 여왕의 복귀에 찬사를 보냈다. /박한준기자 pjokim@metroseoul.co.kr

매년 150이닝 넘기면 류현진 54억 보너스

다저스서도 등번호 '99번'

LA 다저스에 입단하는 류현진(25·사진)이 달성해야 할 최우선 목표는 투구 이닝이다.

다저스와 6년 3600만 달러(약 390억원)에 계약한 류현진은 투구 이닝에 따라 해마다 보너스 100만 달러(10억8000만원)를 추가로 받는다.

다저스는 류현진이 당장 팀의 3~4선발로 활약하려면 최소 150이닝 이상은 던져야 한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연평균 181이닝을 던진 류현진에게 다저스가 제시한 연평균 150이닝은 달성하기에 그리 어려운 목표가 아니다.

한편 류현진은 한화 시절 달았던 등번호 '99번'을 다저스에서도 달고 뛴다. /김현준기자

결승진출 스트레이트 이시영(오른쪽)이 10일 울산 강명정보고에서 열린 2013년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경남대표 최지윤(진주여고)의 얼굴에 스트레이트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시영 태극마크 눈앞

배우 이시영이 복싱 여자 라이트플라이급(-48kg)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전에 올랐다.

10일 울산 강명정보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 겸 2013 복싱 국가대표선수 1차 선발대회 준결승에서 그는 최지윤(진주여고)에 7대 1 판정승을 거뒀다.

이시영은 169cm의 우세한 신장을 이용해 리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갔다. 오른손 잽에 이은 왼손 스트레이트를 여러 차례 성공시키며 점수를 쌓았다. 최지윤이 파고들면 클린치를 통해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48kg급에는 총 5명이 출전했으며 11일 결승전에서 승리할 경우 태극마크를 단다. 앞서 그는 7월 전국체전 서울시 복싱대표 선발전 48kg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서울시 대표로 선발됐다.

/박선영기자 kwon@

메시 86골…40년만에 한해 최다골 신기록

FC바르셀로나의 골잡이 리오넬 메시(25)가 정규리그 5경기 연속 2골 활약을 이어가며 40년 만에 한해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다.

메시는 10일 열린 2012~2013 프리메라리가 15라운드 레알 베티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16분 선제골과 전반 25분 결승골을 몰아쳐 바르셀로나의 2-1 승리를 책임졌다.

이로써 올해 통산 86호 골을 달성하며 1972년 게르트 뮐러가 보유했던 한해 최다 골 기록(85골)을 넘어서며 축구 역사를 새로 썼다. /김민준기자